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6년 6월

선교편지 제 90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대한 관심과 기대, 그리고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필리핀의 대통령 및 공직자 선거'를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6년마다 반복되는 선거이지만,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호불호로 인하여, 뉴스와 대화의 주제는 단연 선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서로의 지지 후보를 확인하고 토론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저도 상대방의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대응을 해주어야만 부드러운 관계가 유지될 정도 였습니다. 선거 열기가 점차 과열됨에 따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필리핀 정부는 선거일 전후로 전국적으로 주류 판매는 물론, 술을 마시지도 못하게 통제를 하였습니다. 반대파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인들이 선거 후보자들을 밀착 경호하고, 각 검문소마다 차량과 가방등의 검색이 한층 더 강화되는등 긴장감이 도는 선거 기간 이었습니다. 필리핀내 미국 대사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자국민에 대하여 모든 이동을 최소화 하라는 주의 경보를 내렸고, 제가 속한 선교 기관에서도 구체적인 주의 사항과 함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선교사들을 제한된 지역내에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긴장감이 팽배한 선거 기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순조롭게 모든 선거를 잘 치루었습니다.

필리핀은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지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선거 결과를 취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난 5월 9일에 치룬 선거 결과를 거의 20여일이 지난 후에야 최종 공표를 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Rodrigo Duterte)'가 약 39%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관심을 모았던 전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 부통령 후보는 아슬 아슬하게 낙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두테르테' 대통령은 제가 살고 있는 다바오의 시장으로 7선을 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경단 (自警團 / Davao Death Squad)이라는 것을 조직하여 초법적인 정치로 각종 범죄를 소탕하여 다바오를 마약과 범죄의 도시에서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변모시켜 왔습니다.



다바오에서는 아직도 주류 판매를 요일별로, 시간별로 제한하고 있고, 담배도 본인의 집이나 차량외에는 다른 곳에서 피울 수가 없으며, 미성년자들의 야간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범죄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바오 내에서 행해지는 'Zero Tolerance Policy'란 감금, 구속, 재판이 없는 '즉각 처벌'을 의미합니다. 마약의 소굴이었던 다바오를 'Zero Tolerance Policy'로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바꿔 놓은 업적이, 많은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필리핀 유권자들에게 인정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바오 시장이지만 \$2,000이 안되는 월급과, 시장으로서 누릴수 있는 차량과 사택등을 거부한 검소한 모습이 크게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범죄 척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개혁 정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인구의 약 90% 정도가 카톨릭 신자인데,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위선적이고 부패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카톨릭 교회와 특권을 누리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개혁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의 불가침 영역이었던 종교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를 이어 필리핀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했던 소수의 귀족 가문에 대한 대대적인 부패 척결도 종교계 못지않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2015년, World Bank는 필리핀을 아시아의 'Rising Tiger'로 모든 면에 있어서 매우 낙관적으로 표현 했었습니다. 금년 6월 30일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이후에 이 Rising Tiger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지 매우 궁금해 집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롬 13:1)**



디고스 내에 있는 현지 교회들을 방문해서 목회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한결같이 교회에 당면한 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디고스 선교 초기에 동역을 했던 '마띠 교회'의 출석 교인은 현재 약 40여명이 되는데,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회의 뒷마당에 '돼지, 염소, 닭'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디고스 내의 현지 교회도 형편이 비슷해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례비도 받지 못하는 담임 교역자는 공사장에서 페인트 작업 관련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교역자는 주중에 트라이시클을 운전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무리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사명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디고스와 같이 비교적 도심지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는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매주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 했습니다. 2015년 새해 첫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교회 구석 빈 공간에 의자를 동그랗게 놓고 몇몇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정말 기적과 같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주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고, 교회에 새롭게 정착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아쉽게 떠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고,...

이렇게 1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는 물론이고 남, 녀 전도회와 주요 부서들도 조직이 되어, 이제는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져 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디고스 예일 교회를 섬기면서 주변 교회에서 겪는 재정적인 실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헌금 수입도 증가하여 교회 재정이 점차 안정 되어야 함이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간단한 '산수'가 현지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디고스 예일 교회에 선교비를 통하여 별도로 지원하는 재정을 제외하면, 100여명의 현지 교인들만의 순수한 헌금 수입 총액은 매주 약 \$20 ~ \$30 정도가 됩니다. 현지 담임 교역자 사례는 물론이고, 매주 예배후 전교인이 먹는 국밥 정도의 친교 음식을 준비하기에도 부족한 액수입니다. 출석 인원수 증가 만큼 헌금도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이곳 선교지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교인이 늘어 감에 따라,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증가된 교인들만큼 감당해야할 '재정 부담'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가르친 것도 아닌데, 주일이 되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깨끗이 목욕을 하고, 땀띠를 방지하기 위한 흰색 분도 바르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밝은 모습으로 교회로 옵니다. 저희와 같은 동양 사람들 이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인하여 외적으로는 모두 평안해 보이고, 전혀 어려운 모습을 발견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리어 가장 우중충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중에 교회가 아닌 마을에서 만나는 이들의 평상시의 모습은 과연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초라한 집에서 낡은 옷을 입고, 장작을 피워가며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선교지에 와 있구나하는 실감으로 다시 긴장이 되곤합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는 교인들이 많고,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운데 오래된 병치레로 고생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어 '헌금'을 한다는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눅 21:2,3)

디고스 예일 교회의 창립 이후 처음으로 5월 마지막 주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교회의 모든 역량을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설교와 성경 공부 내용을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교인 모두에게 전도 대상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이웃 또는 친구들을 전도 대상으로 정하고, 전도를 위한 훈련도 구체적으로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전도주일에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5월 한달동안 부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BOOM (Bring One Or More) Service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믿기 시작한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전도를 고민하고 힘을 쏟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 동역하는 현지 교역자들도 익숙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많은 대화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체로 전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훈련을 통하여 점차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교인 모두가 많은 수고를 하는 가운데 큰 기대와 기쁨 가운데 '전도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전도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느때와 다르게 한꺼번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마치 승리한 모습으로 약정한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씩씩하게 교회 문에 들어서시는 교우들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가로 지으며 꼭 오기로 했는데 다른 급한 일이 생겨 오지 못했다고 아쉬어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인 모두가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안내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인하여 어색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21명'의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오랜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비록 지인들의 강권에 못이겨 생소한 예배에 어렵게 참석 했겠지만, 저희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예배 시종일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은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마침내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